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김 연 수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곽 금 주²⁾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특성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과 어머니 125쌍이었다. 아동의 기질(CBQ 축약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PARQ)는 어머니 보고를 통해, 아동의 생활만족도(K-MSLSS)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가정, 학교, 환경, 자아 영역의 생활만족도에서 아동의 신경증적 기질 특성과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으며 친구 영역의 생활만족도에서는 아동의 외향적 기질 특성과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가정, 학교, 환경, 자아 영역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특히 신경증적 기질 특성이 강한 아동들은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기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다소 경감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어 : 생활만족도, 양육태도, 기질, 아동 중기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NRF-2011-005-B00011).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kjkwak@snu.ac.kr)

Greenspoon & Saklofske, 2001; Huebner, 1991; McKnight, et al., 2002; Teglasi, 1998). 예컨대 Fogle 등(200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생활만족도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도는 외향적 기질 및 사회적 자기 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신경증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최근 Holder와 Klassen(2010) 역시 9-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생활만족도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성인의 외향성 성격 특성과 유사한 기질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신경증과 유사한 기질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성격 및 기질 변인은 외향성 및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격 및 기질에서의 개인차는 설명력이 큰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동의 생활만족도와 기질간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Rigby와 Huebner(2005)는 청소년들의 귀인 양식이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성 관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낙관적이고 내적 귀인을 더욱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Fogle 등(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생활만족도와 외향성간 관계를 매개했지만 생활만족도와 신경증간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동의 기질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 경험을 하는 지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Belsky, 2005; Kochanska, 1997). 즉 부정적인 경험에 취약할 수 있는 기질 특성을 지닌 아동들이 부정적인 양육환경에 표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인 기질 특성을 지닌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인과는 상이한 청소년 및 아동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Belsky, 2005)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족 구조, 양육 스타일, 부모의 정서적 및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가족 갈등과 같은 가족 변인의 역할이 아동과 청소년기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도 최근 진행되고 있다. Suldo와 Huebner(2004)는 사회적 지지-개입, 감독 및 심리적 자율성 보장이라는 권위적 양육 스타일의 세 가지 측면 모두가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지각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도 강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연령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지지적인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했던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느낌이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Ortman(1988)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양육태도와 청소년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온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애정과 관

심을 표현하는 양육태도로 정의되는데(Rohner, 1991),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컨대 Leung, McBride-Chang 및 Lai(2004)의 연구에서 지각된 어머니의 관심은 학업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질과 생활만족도간 관련성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 요인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Suldo와 Huebner(2004), Park(2005)의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아동에게도 청소년과 유사한 혹은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그 관련성을 살펴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변인인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변인인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령 초기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질 특성과 양육태도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초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상기한 Belsky(2005)의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Argyle & Lu, 1990; Fogle, et al., 2002; Holder & Klassen, 2010)에서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는 외향성 및 신경증적 기질 특성을 중심으로 이 두 변인과 생활만족도간 관계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어떻게 조절하는가

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 성격 특성을 측정할 때 통상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중술 등, 2005)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외향성 및 신경증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Holder & Klassen, 2010; Rothbart, et al., 2000)에서 외향성 및 신경증 성격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기질의 하위 차원들을 통해 기질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거부적, 통제적 특성 등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자녀에 대한 애정적 특성과 같은 온정적 양육태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여러 영역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고(Belsky, 2005; Kochanska, 1997),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확장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수정, 곽금주, 2010)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양육 변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동이 지나치게 낮은 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지나치게 높은 신경증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질 특성을 보일 때 온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연 조절 효과를 보이는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온정적인 측면만을 포함시켰다.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알아봄으로써 생활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기질 간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 각각에 대한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대상과 기간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들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본 연구자들의 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참여자 중 일부였다. 자료 수집에 응한 아동-어머니는 모두 129쌍이었으나,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 중 한 쪽이 누락되었거나(3명) 성의 없는 응답(1명)을 한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5명의 아동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 남아는 49명(39%), 여아는 76명(61%)이었다.

자료 수집시 연구에 참여했던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7.11세($SD=.51$)이었으며 이들은 자료 수집 당시 일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으며(42%) 나머지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58%)이었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1세, 어머니가 39세였다. 가계수입은 평균 337만원($SD=193.44$)이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23%, 전문대졸 3%, 대졸 64%, 대학원 이상 10%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24%, 전문대졸 6%, 대졸 63%, 대학원 이상 7%였다.

모든 참가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아동과 부모는 각각 아동용 및 부모용 서면 연구 설명문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연구 목적 및 자료 보관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을 제공받은 후 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비롯한 모든 절차와 측정 도구, 서면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가 개시되기 이전에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

2. 측정도구

아동의 기질(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아동의 기질은 Putnam과 Rothbart(2006)의 아동 기질 측정 척도의 축약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의 하위 기질 차원을 측정하는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수준(activity level, $\alpha=.75$), 분노/좌절(anger/frustration, $\alpha=.76$), 접근/긍정적 기대(approach/positive anticipation, $\alpha=.65$), 주의 집중(attentional focusing, $\alpha=.75$), 불편함(discomfort, $\alpha=.79$), 반응 감소/달래기(falling reactivity/soothability, $\alpha=.73$), 공포(fear, $\alpha=.68$), 고강도 즐거움(high intensity pleasure, $\alpha=.72$), 충동성(impulsivity, $\alpha=.72$),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alpha=.72$), 저강도 즐거움(low intensity pleasure, $\alpha=.69$), 지각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alpha=.73$), 슬픔(sadness, $\alpha=.61$), 수줍음(shyness, $\alpha=.85$), 웃음(smiling and laughter, $\alpha=.7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들이

해당 영역의 특성을 보다 강력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두 가지 성격 특질과 유사한 기질 특성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CBQ를 비롯하여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기질 측정도구를 개발한 Rothbart 등(2000)에 따르면 앞서 기술한 13가지의 기질 하위 영역 중 고강도 즐거움과 활동수준은 외향성(extraversion)과, 분노/좌절, 불쾌함, 공포, 슬픔은 신경증(neuroticism)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외향성과 신경증은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Holder와 Klassen (2010)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기질 특성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에 해당되는 6개 하위 영역 총 38문항을 사용하였다. 고강도 즐거움과 활동수준으로 구성된 외향성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76$, 분노/좌절, 불쾌함, 공포, 슬픔으로 구성된 신경증적 성향의 신뢰도계수는 $\alpha=.83$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 (1991)가 개발한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를 2004년 수정한 29문항의 Parent Parq/Control: Child(Short form)를 박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차원의 수용-거부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도록 만들어 졌으며 다음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온정/애정(warmth/affection, $\alpha=.77$), 공격성/적대감(aggression/hostility, $\alpha=.70$), 무시/무관심(neglect/indifference, $\alpha=.68$), 구별되지 않는 거부(undifferentiated rejection, $\alpha=.70$).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어머니의 자기 보고에 의해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온정 및 애정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다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 구체적으로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동의 생활만족도(K-MSLSS)

다면적 생활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Huebner(1994)의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를 한국 아동에 맞게 개발한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 이정미, 이양희, 200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족($\alpha=.80$), 친구($\alpha=.84$), 학교($\alpha=.84$), 자아($\alpha=.73$), 환경($\alpha=.82$) 등 다섯 영역에 대한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상에서 평정되었다. 전체 신뢰도는 $\alpha=.80$ 이었으며 준거척도와와의 상관분석 결과, 소아우울척도와 .63의 양호한 상관을 보여 적절한 공인타당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미, 이양희, 2005).

3. 자료 수집 및 분석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2010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측정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기질은 각 가

정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지와 함께 우편발송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어머니가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질에 대하여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같은 시기, 아동과 보호자들이 아동발달에 대한 종단연구의 참여를 위해 대학교 내에 마련된 실험실을 방문하였을 때 측정되었다. 아동은 생활만족도 이외에도 내외통제 및 친사회성을 측정하는 면접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사전에 훈련을 받은 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의 검사자가 아동에게 각 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면 검사자가 아동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면접 종료 후 별도로 마련된 질문에서 각 문항을 쉽게 이해하였으며 응답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생활만족도 측정에는 평균적으로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치 중 하위 척도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연구 목적에 따라 동일한 척도에서 일부 척도를 사용한 바 있는 연구(김수정, 박금주, 2010; Kochanska, Coy, & Murray, 2001)에 비추어 타당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생활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아동의 생활만족도별로 각각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아

동의 두 가지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각각 아동의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또한 기질 특성과 양육태도간 상호작용이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아동 외향성 기질 및 신경증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생활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 기질, 양육태도, 생활만족도간 관련성

아동의 기질, 온정적인 양육태도, 생활만족도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을 알아 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외향성 기질은 신경증 기질($r=-.28, p<.01$)과 부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환경 영역을 제외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정($r=.20, p<.05$), 학교($r=.21, p<.05$), 친구($r=.36, p<.01$) 자아($r=.33, p<.05$). 신경증적 기질은 아동의 생활만족도 중 가정($r=-.23, p<.05$), 환경($r=-.20, p<.05$), 자아($r=-.34, p<.02$)와 부정 상관이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가정의 네 가지 영역, 즉 가정($r=.32, p<.01$), 학교($r=.24, p<.01$), 환경($r=.31, p<.01$), 자아($r=.33,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125$)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기질	외향성	61.35	(10.11)	13-91
	신경증적 성향	96.31	(20.64)	25-175
	온정적 양육태도	12.26	(3.28)	8-32
생활 만족도	가정	21.50	(4.21)	7-28
	학교	22.86	(6.37)	8-32
	친구	22.98	(4.42)	8-32
	환경	18.27	(4.75)	6-24
	자아	14.77	(3.91)	5-20

표 2. 각 변인간 상관관계

	1. 기질외향성	2. 기질신경증	3. 온정적 양육태도
1. 기질외향성	1		
2. 기질신경증	-.28**	1	
3. 온정적 양육태도	.10	-.19*	1
4. 생활만족도: 가정	.20*	-.23*	.32**
5. 생활만족도: 학교	.21*	-.14	.24**
6. 생활만족도: 친구	.36**	-.08	.08
7. 생활만족도: 환경	.11	-.20*	.31**
8. 생활만족도: 자아	.33**	-.34**	.33**

* $p < .05$, ** $p < .01$

2.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표 2를 살펴보았으며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관계 절대값의 분포가 .10~.28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

험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9~.92로 분포하였으며, VIF는 1.04~1.09 사이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값은 .1 보다 작을 때, VIF는 10보다 클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므로(이학식, 임지훈, 2005)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기질 특성을, 2단계에서는 온정적 양육태도를, 3단계에서는 기질 외향성×온정적 양육과 기질 신경증×온정적 양육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모형의 단계별 유의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F=5.45$, $p<.01$, 2단계 $F=7.45$, $p<.01$, 3단계 $F=9.14$, $p<.01$.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신경증적 기질은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의 변량의 8%를 설명하였다. 즉, 신경증적 기질 특성이 높을수록 가정에 대한 생활만족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2단계에서 투입된 온정적 양육태도 역시 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단계에서 신경증적 기질×온정적 양육의 상호작용은 $p<.001$ 수준에서 가정과 관련된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설명력은 12%였다.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중앙치(median)를 기준으로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에서 중앙치 이상인 집단과 이하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별 인원은 신경증 저/온정적 양육 저 집단 36명, 신경증 저/온정적 양육 고 집단 28명, 신경증 고/온정적 양육 저 집단 27명, 신경증 고/온정적 양육 고 집단 36명이었다. 이와 같이 구분된 신경증적 기질×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하집단에 따른 가정 영역 생활

표 3.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i>B</i>	SEB	β	<i>t</i>	R^2	R^2 change
1단계					.08	.08**
기질외향성	.06	.04	.14	1.54		
기질신경증	-.04	.02	- .22	-2.37*		
2단계					.15	.08**
기질외향성	.05	.04	.13	1.45		
기질신경증	-.03	.02	- .16	-1.84		
온정적 양육태도	.31	.11	.28	3.25**		
3단계					.28	.12***
기질외향성	.22	.13	.52	1.69		
기질신경증	-.21	.06	-1.05	-3.66***		
온정적 양육태도	3.88	1.00	2.69	3.37**		
기질외향성×온정적 양육태도	.02	.01	.93	1.41		
기질신경증×온정적 양육태도	-.02	.01	-1.88	-4.4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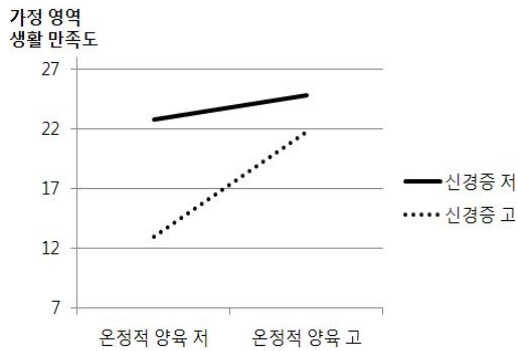


그림 1.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얻어졌다, $F=80.45$, $p<.01$.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신경증적 기질 특성이 높은 아동

과 낮은 아동 간의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컸다. 반면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아동의 신경증적 기질 특성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었다.

3.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

학교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기질 특성을, 2단계에서는 온정적 양육태도를, 3단계에서는 기질 외향성×온정적 양육과 기질 신경증×온정적 양육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귀

표 4.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B	SEB	β	t	R ²	R ² change
1단계						.05	.05*
	기질외향성	.12	.06	.18	1.96*		
	기질신경증	-.03	.03	-.10	-1.09		
2단계						.09	.04*
	기질외향성	.11	.06	.17	1.89		
	기질신경증	-.02	.03	-.06	-.68		
	온정적 양육태도	.40	.17	.21	2.34*		
3단계						.17	.08*
	기질외향성	.28	.21	.44	1.32		
	기질신경증	-.28	.10	-.91	-2.96**		
	온정적 양육태도	3.90	1.64	2.04	2.39*		
	기질외향성×온정적 양육태도	.02	.02	.63	.88		
	기질신경증×온정적 양육태도	-.03	.01	-1.50	-3.30**		

* $p<.05$, ** $p<.01$, *** $p<.001$

모형의 유의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F=3.39$, $p<.05$, 2단계 $F=4.18$, $p<.01$, 3단계 $F=4.97$, $p<.01$.

1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외향성 기질은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5%였다. 그러나 신경증적 기질 특성은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2단계에서 투입된 온정적 양육태도는 $p<.05$ 수준에서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느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낮은 반면, 부모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단계에서는 기질 신경증, 온정적 양육태도, 신경증적 기질×온정적 양육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외향적 기질×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

한 분석과 유사하게 신경증적 기질×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하집단에 따른 가정 영역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29.99$, $p<.01$.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아동의 신경증적 성향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4.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

친구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 기질 특성, 2단계 온정적 양육태도, 3단계 각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모형의 유의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단계 $F=9.17$, $p<.01$, 2단계 $F=6.18$, $p<.01$, 3단계 $F=6.18$, $p<.01$.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아동의 외향적 기질 특성이 친구 영역의 생활만족도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설명력은 13%이었다. 반면 신경증적 기질 특성은 친구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2단계에서 온정적 양육태도는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외향적 기질×온정적 양육의 상호작용은 $p<.05$ 수준에서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그 설명력은 7%였다.

앞서 살펴본 가정 및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외향적 기질×온정적 양육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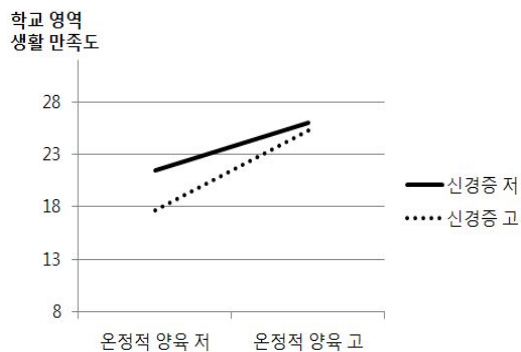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

표 5.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i>B</i>	SEB	β	<i>t</i>	<i>R</i> ²	<i>R</i> ² change
1단계						.13	.13*
	기질외향성	.16	.04	.37	4.14***		
	기질신경증	-.00	.02	-.01	-.11		
2단계						.13	.07*
	기질외향성	.16	.04	.36	4.03***		
	기질신경증	-.01	.02	-.02	-.40		
	온정적 양육태도	.06	.12	.05	.04		
3단계						.20	.07*
	기질외향성	.11	.14	.57	.78		
	기질신경증	-.10	.06	-.43	-1.55		
	온정적 양육태도	.63	1.11	1.21	.57		
	기질외향성×온정적 양육태도	.02	.01	2.14	1.93*		
	기질신경증×온정적 양육태도	-.01	.01	-.71	-1.53		

* $p < .05$, ** $p < .01$, *** $p < .001$

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의 중앙치(median)를 기준으로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에서 중앙치 이상인 집단과 이하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조합하였다. 각 집단별 인원은 외향성 저/온정적 양육 저 집단 36명, 외향성 저/온정적 양육 고 집단 26명, 외향성 고/온정적 양육 저 집단 25명, 외향성 고/온정적 양육 고 집단 36명이었다. 이 네 집단에 따른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서의 집단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60.55$, $p < .01$.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외향적 기질 특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 간의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컸다. 반면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

은 조건에서는 아동의 기질 특성에 따른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동의 외향적 기질 특성과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간 관계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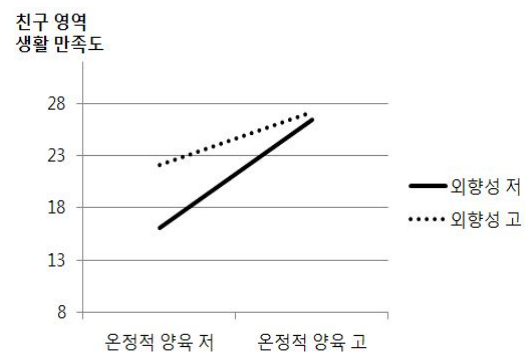


그림 3. 친구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외향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

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환경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

환경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의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단계별 투입 변인은 지금까지 제시한 회귀분석과 동일하였다. 각 회귀모형의 유의도는 다음과 같았다, 1단계 $F=3.26, p<.05$, 2단계 $F=5.64, p<.01$, 3단계 $F=4.48, p<.01$.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신경증적 기질 특성은 환경 영역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변량을 5% 설명하였다. 아동이 정서적으

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걱정,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느끼는 신경증적 성향이 강할수록 거주 환경과 관련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외향적인 기질 특성은 환경과 관련된 생활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온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였을 때 온정적 양육태도는 $p<.01$ 수준에서 자신의 환경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온정적 양육태도, 기질 신경증×온정적 양육태도가 환경 영역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였다. 한편 온정적 외향적 기질 특성은 환경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환경 영역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호작

표 6. 환경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i>B</i>	SEB	β	<i>t</i>	R^2	R^2 change
1단계					.05	.05*
기질외향성	.03	.05	.05	.59		
기질신경증	-.05	.02	-.21	-2.22*		
2단계					.12	.07**
기질외향성	.02	.04	.04	.46		
기질신경증	-.04	.02	-.16	-1.70		
온정적 양육태도	.40	.13	.28	3.15**		
3단계					.16	.04*
기질외향성	.01	.12	.57	.08		
기질신경증	-.10	.07	-.42	-1.35		
온정적 양육태도	1.37	1.26	.94	1.09*		
기질외향성×온정적 양육태도	.01	.01	.12	.17		
기질신경증×온정적 양육태도	.01	.01	-.88	-.19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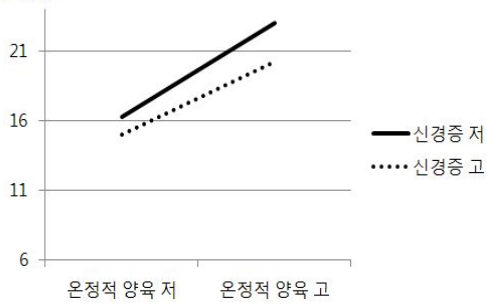
환경 영역
생활 만족도

그림 4. 환경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간 상호작용

용 효과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동의 신경증적 기질특성이 높을 때에도 부모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환경 영역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F=72.81$, $p<.05$.

6.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에서 다른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실시했던 방식과 유사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각 회귀모형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1단계 $F=13.98$, $p<.05$, 2단계 $F=13.47$, $p<.01$, 3단계 $F=13.71$, $p<.01$.

1단계에 투입된 외향적 기질과 신경증적 기질 모두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설명력은 19%였다. 2단계에 어

표 7.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B	SEB	β	t	R ²	R ² change
1단계						.19	.19**
	기질외향성	.09	.03	.24	2.81**		
	기질신경증	-.06	.02	-.30	-3.52**		
2단계						.25	.06**
	기질외향성	.09	.03	.23	2.76**		
	기질신경증	-.05	.02	-.25	-3.02**		
	온정적 양육태도	.30	.09	.26	3.21**		
3단계						.37	.12**
	기질외향성	.56	.11	1.45	5.03**		
	기질신경증	-.11	.05	.58	-2.15*		
	온정적 양육태도	4.27	.87	3.68	4.93**		
	기질외향성×온정적 양육태도	.04	.01	-2.74	4.42**		
	기질신경증×온정적 양육태도	.01	.01	-1.30	-3.26**		

* $p<.05$, ** $p<.01$, *** $p<.001$

머니의 온정적 양육을 추가한 결과 아동의 외향적 기질, 신경증적 기질, 온정적 양육태도가 모두 아동의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투입된 외향적 기질×온정적 양육태도, 신경증적 기질×온정적 양육태도 모두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을 통하여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신경증적 기질×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하집단에 따른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조건에서 신경증적 기질 특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간의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기질 특성의 고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17.56, p<.01$.

외향성 기질×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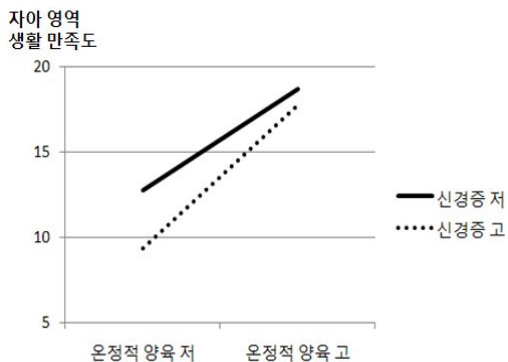


그림 5.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적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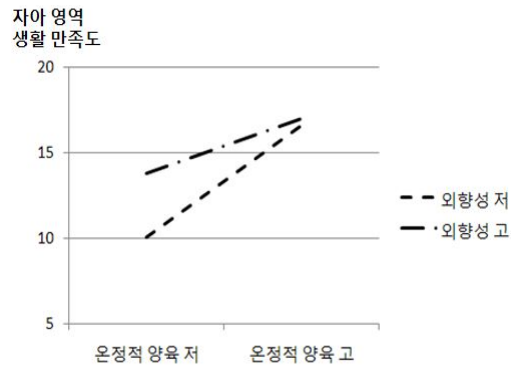


그림 6.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에 대한 외향성 기질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향성 저/온정적 양육 고 집단과 외향성 고/온정적 양육 저 집단의 자아 영역 생활만족도 평균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 두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있었다, $F=75.23,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기질 특성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 특성의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질 특성과 양육태도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초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Belsky(2005)의 주장에 기반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Argyle & Lu, 1990; Fogle, et al., 2002; Holder & Klassen, 2010)에서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는 외향성 및 신경증적 기질 특성을 중심으로 이 두 변인과 생활만족도간 관계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기질 특성이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그리고 아동의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 각각에 대한 온정적 양육태도와 기질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25명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외향적 기질 특성은 생활만족도와 정적 관련성을, 신경증적 기질 특성은 부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향성 기질 특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신경증적 기질 특성이 강한 아동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결과들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Fogle, et al., 2002; Greenspoon & Saklofske, 2001; Holder & Klassen, 2010; McKnight,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영역별로 기질 특성과의 관련성이 다소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즉 외향적 기질 특성은 가정, 학교 및 친구 영역에서의 생활만족도와, 신경증적 기질 특성은 가정 및 환경 영역에서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만족도의 영역에 따른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즉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외향성이 신경증 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질 특성일 수 있다. 따라서 외향적이고 사회적 자극에 대한 추구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잘 적응하며 결과적으로 이 영역에서 더 큰 생활만족도를 보고했을 수 있다.

둘째, 5가지 생활만족도 영역에 대하여 외향적 기질 특성과 신경증적 기질 특성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별로 관련성을 살펴보면 기질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 영역, 학교 영역, 환경 영역, 자아 영역의 생활만족도의 경우 신경증적 기질 특성×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이 낮은 아동들보다 가정, 학교, 환경, 자아와 관련된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아동의 신경증적 기질 성향의 고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친구 영역과 자아 영역의 생활만족도에서 외향적 기질 특성×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 외향적 기질의 고저에 따른 친구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였다. 온정적 양육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외향적 성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외향적 성향이 낮은 아동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외향적 성향이 낮은 아동들도 외향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과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양육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그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Belsky(2005)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부정적 기질 특성

이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데 있어서 일종의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신경증적 기질 경향이 높거나 외향적 기질 특성이 낮은 것은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위험성을 높이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때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온정적 수용을 포함하는 양육은 아동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기질 특성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생활만족도 영역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가정, 학교, 환경 영역의 생활만족도에서 외향적 기질 특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었으며 친구 영역의 생활만족도에서 신경증적 기질 특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의 영역에 따른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별로 기질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아동기 기질 특성과 생활만족도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을 뿐이다. 특히 국내에서 아동기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Park, 2005).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기보고가 가능한 연령 중 어린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기질 및 양육 변인간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긍정심리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을 벗어나 보다 확장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회귀모형에는 원 변인과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되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들 간 뿐만 아니라 원 변인과 상호작용항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 중 일부의 타당도가 보고되지 못한 것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어 부모 뿐 아니라 교사 및 또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김수정, 곽금주, 2010; 김연수, 곽금주, 2011)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Park, 2005). 따라서 또래 친구를 통한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 충족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와 어떻게 관련되며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한층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중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생활만족도의 안정성 및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나 구체적인 증진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이후 발달 단계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김수정, 곽금주 (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연수, 곽금주 (2011). 아동 초기 특질변화에 대한 환경적인 낙관적 믿음과 아동 중기 지적 능력간 관련성에 대한 단기종단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79-92.
-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이학식, 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서울: 법문사.
- Argyle, M., & Lu, I. (1990). Happiness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1255-1261.
- Ash, C., & Huebner, E. S. (2001). Environmenta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test of cognitive media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 320-336.
- Belsky, J. (2005).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 An evolutionary hypothesis and some evidence. In B. J. Ellis & D. F. Bjorklund (Eds.),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pp. 139-163). New York: Guilford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ew, T., & Huebner, E. S. (1994).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3, 185-19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389-399.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89-97.
- Fogle, L. M., Huebner, S., & Laughlin, J. 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Cognitive and behavioral mediation model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373-392.
- Funk, B. A., Huebner, E. S., & Valois, R. F. (200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a high school samp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41-54.
- Gilman, R., & Huebner, E.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 192-205.
- Gilman, R.,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0). A first study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 135-160.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patholog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81-108.
- Holder, M. D., & Klassen, A. (2010). Temperament & happiness in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419-439.
- Huebner, E. S. (1991).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 103-111.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 149-158.
- Huebner, E. S., Funk, B. A., & Gilman, R. (2000).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 53-64.
- Huebner, E. S., Laughlin, J. E., Ash, C., & Gilman, R. (1998). Further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 118-134.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From toddlerhood to age f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28-240.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4), 1091-1112.
- Leung, C. Y. W., McBride-Chang, C., & Lai, B. P. Y. (2004).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yle, academic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 113-143.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M.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677-687.
- Neto, F. (1993).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metrics properties in an adolescent sam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125-134.
- Ortman, P. E. (1988). Adolescents' perceptions of

- and feelings about control and responsibility in their lives. *Adolescence*, 23, 913-924.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2), 209-223.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Rigby, B. T., & Huebner, E. S. (2005). Do causal attribu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2, 91-99.
- Rohner, R.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22-135.
- Seligson, J., Huebner, E. S., & Valois, R. F. (2003).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BMSL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 121-145.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165-195.
- Teglasi, H. (1998). Implications of temperament for the practice of schoo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Review*, 27, 475-478.
- 1 차원고접수 : 2012. 12. 31.
수정원고접수 : 2013. 2. 16.
최종게재결정 : 2013. 3. 5.

The Role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Temperament and Life Satisfaction

Kim, Yeonsoo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k, Keumjoo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both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were 125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125 mother-child pairs) of elementary school age.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were measured using self reporting survey reports by the mother's, and similarly, children's life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self reporting survey reports by the children. Based on the self reported surveys reports by the parents and children, both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 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 with family, school, living environment and self, there were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the children's neuroticism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s. Additionally, in terms of their life satisfaction with friends and self, the interactional effect between the children's extraversion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s significantly predicted 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 with their friend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mother's acceptance attitudes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parenting attitude, temperament, middle childhood